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손종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1. 머리말

ITU는 세계 정보통신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며 UN산하 전기통신/ICT분야 전문 기구로서, 1865년 설립된 최고(最古) 국제기구이다.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의 최고 의결회의로, 연합의 전략·재정계획, 운영·관리방안 등을 의결하며 사무총장 등 고위직과 이사국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제20차 전권회의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두바이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180개국 2,3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을 비롯하여 국립전파연구원, TTA, KISDI, ETRI, NIPA, 순천향대학교 등 대표단 25명이 참가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연설

회의기간 중 첫째 주 본회의에서는 각국 수석대표의 정책연설(Policy Statement)이 있었다. 2018년

전권회의의 정책연설의 공통주제는 'Connect 2020'으로 각 회원국의 통신인프라 투자 등 연결성(Connectivity) 제고 노력과 향후 ITU와의 협력계획 등을 알리는 자리였다.

10월 30일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유영민 장관은 한국의 5G 상용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이 'Connect 2020 의제'를 'Connect 2030'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음을 알리고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연결성 확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기 위해 ITU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2.2 고위직 및 이사국 선거

11월 1일부터는 차기 ITU를 이끌어갈 고위직 및 이사국에 대한 선거가 치러졌다. 사무총장에는 중국의 자오 허우린(趙厚麟), 사무차장에는 영국의 말콤 존슨(Malcolm Johnson)이 연임에 성공하였다. 표준화국장에는 한국의 이재섭 현 국장이 연임에 성공하여 향후 4년간 표준화 국장 임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ITU 표준화국장은 표준화부문(ITU-T)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차세대 정보통신, ICT 글로벌 표준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직위로 큰 의미가 있다.

전파국장과 개발국장에는 각각 우루과이의 마리오 마니에비츠(Mario Maniewicz) 후보와 미국의 도린 보그단(Doreen Bogdan)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특히 신입 개발국장으로 ITU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고위직이 선출되어 큰 관심과 축하를 받았다.

11월 5일 실시된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지역 이사국에 재선출 되었다. 1989년 니스 전권회의 이후 8회 연속 ITU 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ICT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는 쾌거였다.

2.3 주요의제 논의 결과

2.3.1 2019~2023 전략계획과 재정계획

향후 4년간 ITU업무의 근간이 될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이 승인되었다. 기존 결의 200의 첨부문서에 있던 목표가 전략계획으로 보완 및 격상되어 성장(Growth), 포용성(Inclusive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혁신(Innovation) 및 협력(Partnership)의 5대 목표로 확정되었다. 또한, 약 6.6억 스위스프랑(약 7,400억 원)이 ITU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은 10단위(318만 CHF, 약 36억 원)의 연간 분담금을 유지하여 납부 순위 11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2.3.2 신규결의

회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신규결의가 채택되었다. 주목할 만한 신규결의로는 OTT(Over The Top)s, 디지털경제, 중소기업(SME,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ITU 참여 격려 등이 있다.

OTT 신규결의는 OTT를 시장과 경쟁 혁신의 산물로 보고 경제·정책적 연구로 한정하려는 회원국들과

규제 측면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최종적으로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를 지속하고 모범사례와 기술적 지침 정보 공유, 인적역량강화를 촉진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신규결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업센터 등을 위한 전기통신/ICT 중심 혁신환경 조성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채택되었으며, 중소기업 관련 결의는 2022년까지 SME 멤버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전권회의에 제출된 신규결의 제안 중 인공지능(AI) 관련 제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미국, 유럽, 아랍지역에서 각각 기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랍지역은 인공지능 관련 ITU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준비지수(ARI)를 개발하여 각국의 인공지능시대 준비현황을 비교·점검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 관련 활동과의 중복을 지양하고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AI for Good Summit’ 행사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 대립을 보인 가운데 최종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인공지능 신규결의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2.3.3 주요 쟁점

기존 결의의 개정에 있어서는 인터넷·사이버보안 관련 주제들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사회 인터넷작업반의 역할과 참여범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동 작업반에 회원국 이외의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회원국 한정으로 유지하기를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IP 기반 망 결의에서는 주요협력기관 목록에 DOA기술을 보유한 DONA재단을 추가할 것을 아랍지역에서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의 반대가 있었다. 결국 인터넷

관련 결의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기 보다는 편집적 수정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글로벌 사이버 아젠다(GCA) 업데이트가 쟁점이었다. GCA를 발전시키자는 아랍, 아프리카, RCC지역과 현재의 GCA가 기술 중립적이고 11년 동안 문제가 없었으므로 업데이트에 반대하는 유럽, 미주 간 대립이 있었다. 동 분야 역시 최종일이 되어서 현재의 GCA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국제전기통신규칙(ITR)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아랍·아프리카지역은 새로운 ITR 개정을 위해 2020년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WCIT) 개최를 주장하였다. 반면 미주·유럽지역은 ITR 전문가 그룹에서 개정에 대한 합의가 전무했으므로 개정 필요성에 회의를 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전문가 그룹을 다음 전권회의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2019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여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4 한국 주도로 개정된 결의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기고를 제출하였으며 모두 반영되었다. 2014년 부산전권회의에서 신규로 채택된 결의 중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결의 197), 커넥트 2020(결의 200)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기고(ACP, Asia-Pacific Common Proposal)로 제출하여 지역을 대표하여 전권회의를 대응하였다. 또한, 사이버 보안(결의 130), 온라인아동보호(결의 179)에도 관련 연구반의 작업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 등을 제안하여 반영하였다.

결의 200의 경우 목표연도를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 연계하여 2030년으로 연장(Connect 2030)하고 세부 목표는 ITU의 전략목표(결의 71)와

연계하였다. 동 결의는 큰 이견 없이 조기에 채택되었으며 한국이 2014년에 이어 ITU의 주요 전략목표에 기여한 계기가 되었다.

결의 197은 경우 다수 지역에서 스마트시티&커뮤니티와 결합한 기고를 제출하였고 아태지역에서는 인도에서 별도로 스마트시티 신규결의를 제안하여 두 결의의 통합여부가 논의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인도가 신규결의 채택을 포기하고 결의 197과의 통합에 합의하면서 사물인터넷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IoT & SSCC) 촉진으로 제목이 변경되었다. 한국은 아·태지역 내에서 별도기고를 제출한 인도와 협의를 통해 무리 없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협상력 및 포용성을 발휘하였다.

3. 맺음말

이번 전권회의는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한 후 첫 번째 열린 전권회의로 ITU 및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ICT분야 리더십을 이어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재섭 표준화국장의 재선과 이사국 8선에 성공하여 ITU에서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 한국 주도로 신설했던 3개 결의안 중 2개의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의 수립, 신규결의 및 기타 쟁점 결의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선거에서는 미주지역에서 2명의 국장을 배출하고 아프리카 지역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선진국 중심의 리더십이 구축되었다.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아태지역 출신 선출직 2석을 유지했으나 향후 전권회의에서 모두 임기가 만료되는 바 차기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전권회의 개최지에 대해서는 회의기간 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며 향후 2019년 이사회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